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33>

JCCT 2023-11-5

## 코로나19 이후 장애학생 교육 격차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현황과 요구

### Current status and needs for special education to support educational gap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fter COVID-19

임장현\*, 전해인\*\*

Janghyun Lim\*, Haein Jeon\*\*

**요약** 2023년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안정추세에 접어들었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격 수업 등 비대면 학습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학생의 학업, 사회적 발달 격차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이후 장애학생의 교육 현황과 학업 결손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 특수교사 2,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학업, 정서, 행동 측면에서 발달지연과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지원, 심리상담, 정서행동에 대한 의료적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결과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특수교육, 장애학생 지원, 교육 격차

**Abstract** Although COVID-19 has transitioned to a level 4 infectious disease in 2023 and has entered a stable trend, in special education settings,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the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gap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used by non-face-to-face learning situations such as remote classes during the COVID-19 period is emerging. there is. Accordingly, in this study, in order to identify and support the educational status and academic defici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fter COVID-19,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2,214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17 cities and analyzed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due to COVID-19, the developmental delay and educational gap in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academics, emotions, and behavior deepened, and there was a high demand for manpower support,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medical support for emotional behavior as a way to support thi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up results were proposed.

**Key words** : COVID-19, special education,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educational gap

#### 1. 서론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특수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원격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원격교육은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정희원,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조교수 (제1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hjeon@konyang.ac.kr](mailto:hjeon@konyang.ac.kr)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Korea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수행 중심수업으로 이루어져있다[1].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도입으로 준비되지 않은 원격교육 환경은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켰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 및 자료 제작의 어려움을 야기하였다[2].

2023년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위기 조정 로드맵에 따라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2], 확진자 수는 감소, 안정추세에 접어들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격 수업 등 비대면 학습상황에서 장애학생의 학업, 사회적 발달 지연으로 인한 결손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인 학습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 학업 결손과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나타났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협동, 배려, 경쟁 등 인격적/인성적 측면의 사회적 기술과 태도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고,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활동 중심 교수학습방법 구현의 어려움,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 학습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64조 제1항, 제3항), 원격교육기본법(2022.4.25.) 등을 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교육 현장의 체감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교육환경 차원에서는 장애인 학습자를 고려한 온라인 수업 등 대책 가이드라인 부재,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 및 인력제공 부재,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장애인 학습자가 고려된 진행방식과 과제물 미흡, 교육 전문인력 순회 등 직접적인 가정 방문형 인적 자원이 미흡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생 개인 차원에서는 특수학교 중심의 미흡한 긴급 돌봄 지원체계로 교육 및 돌봄 공백, 장애인 학습자 개인별 교육계획에 대한 고려 부족, 장애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영상 및 콘텐츠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5].

대면교육으로 전면 전환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기간 이상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 결손 및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후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19 동안 장애학생의 어려움과 요구, 특수교육 지원 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설문 문항 개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이후 장애학생의 교육 결손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현황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들[6]~[8]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의 초안은 연구자 협의회를 통해 관련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를 고려하여 항목을 검토하고 각 문항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료화하였다.

문항 특성에 따라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실행도 등은 Likert척도로 측정하고, 어려움과 요구, 인식 등의 의견은 선다형과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 초안은 특수교육 장학사 및 행정가, 특수교육과 교수, 현장 교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 평균4.65/5의 점수를 산출하였고 수정 제안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문항에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 2. 설문 조사 실시 및 자료 분석

설문조사는 교육부의 설문조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2022년 11월 19일~11월 30일 동안 실시되었다. 17개 시도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취지와 목적을 전달한 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중복선택을 하는 선택형 문항의 경우 다중응답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설문 조사 참여 인원

설문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사 인원은 총 2,214명으로 지역별 참여를 보면 경기도가 464명(21%)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서울 373명(16.8%), 경남 236명(10.7%), 충남 165명(7.5%), 전남 138명(6.2%), 부산 131명(5.9%), 인천 122명(5.5%)이 참여하였다. 그 외 충북, 대구, 전북, 강원, 경북, 광주, 대전에서는 2.7%~4.3%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제주, 세종, 울산에서 0.8%~1.1%의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근무 기관별 참여 인원은 특수학급 1,911명(86.3%), 특수학교 238명(10.7%), 특수교육지원센터 65명(2.9%)으로 대부분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관설립 형태는 공립학교 1,905명(86%), 사립 188명(8.5%), 국립 121명(5.5%)으로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특수교사의 성별은

여자 1,820명(82.2%), 남자 394명(17.8%)으로 대부분 여 교사였으며, 연령대는 20대~50대까지 고른 참여율을 보였고, 30대(825명, 37.3%)와 40대(669명, 30.2%)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은 5년 미만인 637명(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10년 미만 477명(21.5%), 10년~15년 미만 367명(16.6%), 15년~20년 미만 346명(15.6%), 25년~30년 미만 81명(3.7%), 30년 이상 96명(4.3%) 순으로 경력별로 고른 참여율을 보였다.

표 1. 특수교사의 기본 인적 사항(N=2,214)  
 Table 1. Basic personal informa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백분율(%)
근무 기관	특수학급	1,911	86.3%
	특수학교	238	10.7%
	특수교육지원센터	65	2.9%
기관 설립 형태	공립	1,905	86 %
	사립	188	8.5 %
	국립	121	5.5 %
성별	여	1,820	82.2 %
	남	394	17.8 %
연령	20대	418	18.9 %
	30대	825	37.3 %
	40대	669	30.2 %
	50대	277	12.5 %
	60대 이상	25	1.1 %
교직 경력	5년 미만	637	28.8 %
	5년-10년 미만	477	21.5 %
	10년-15년 미만	367	16.6 %
	15년-20년 미만	346	15.6 %
	20년-25년 미만	210	9.5 %
	25년-30년 미만	81	3.7 %
	30년 이상	96	4.3 %

### III. 연구 결과

####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1) 코로나19가 장애학생에게 미친 영향과 교육 결손  
 특수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학생에게 교육 결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1,859명, 84%), 아니요(355명, 16%)로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 장애학생에게 교육 결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코로나19는 학생 발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했는데, 주로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성 발달저해(1,584명, 30%),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부족(1,142명, 21.7%)과 의사소통 발달 저해(889명,

16.9%), 기초학습 능력 형성(862명, 16.4%)과 정서적 발달(374명, 7.1%)의 어려움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다.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장애학생의 교육 격차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가족의 역량(730명, 39.3%)과 학생의 장애정도(530명, 28.5%)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다음으로 장애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276명, 14.8%), 학교차원의 학습지원(116명, 6.2%), 가정과의 협력 부족(90명, 4.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코로나19가 장애학생에게 미친 영향과 교육결손 (N=2,214)  
 Table 2. Impact of COVID-19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educational deficits

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백분율(%)
결손 여부	예	1,859	84 %
	아니요	355	16 %
학생 발달에 미친 영향	대인관계 기술, 사회성 발달 저해	1,584	30 %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부족	1,142	21.7 %
	의사소통 발달 저해	889	16.9 %
	기초 학습 능력 형성의 어려움	862	16.4 %
	정서적인 발달의 어려움 (예: 우울감 등)	374	7.1 %
	다양한 도전행동 출현	261	5 %
	신체적 발달이나 건강의 어려움	114	2.2 %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	26	0.5 %
	기타	20	0.4 %
	교육 격차에 영향을 미친 요소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가족의 역량	730
학생의 장애 정도(예: 중도·중복장애)		530	28.5 %
장애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276	14.8 %
학교 차원에서 학습지원		116	6.2 %
가정과의 협력 부족		90	4.8 %
스마트기기 제공 등 인프라 구축 여부		45	2.4 %
치료지원 등 관련 서비스		23	1.2 %
보조공학 기기 지원 여부		11	0.6 %
기타	38	2 %	

#### 2) 교육격차 해소 방안

특수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급당 인원수 감축 및 특수교사의 정원확충(1,317명, 59.5%)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함께 수준별 교육과정 자료개발(334명, 15.1%), 지역 내 장애학생 돌봄 강화(186명, 8.4%), 원

격 및 대면교육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113명, 5.1%), 기간제 또는 협력 강사 확충(122명, 5.5%) 순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다. 또한 특수교사 및 관련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실시(86명, 3.9%, 지역별, 학교별 편차를 고려한 디지털 기기 지원(40명, 1.8%)이 있었다.

표 3. 교육격차 해소방안 (N=2,214)

Table 3. Measures to resolve the educational gap

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백분율(%)
1	학급당 인원수 감축(특수교사 정원확충)	1,317	59.5 %
2	수준별 교육과정 자료개발	334	15.1 %
3	지역 내 장애학생 돌봄 강화	186	8.4 %
4	원격 및 대면교육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	113	5.1 %
5	기간제 또는 협력 강사 확충	122	5.5 %
6	특수교사 및 관련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실시	86	3.9 %
7	지역별, 학교별 편차를 고려한 디지털 기기 지원	40	1.8 %
8	기타	16	0.7 %

3) 대면수업 전환 후 학급 차원의 강조점과 교육활동 실행 시 가장 큰 어려움

특수교사들은 대면수업으로 전환 후 학급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들은 먼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지도(246명, 25%)에 힘썼다고 답했으며, 교우관계 지원을 통한 사회성 증진(162명, 16.5%)과 기초학업 기술지도(156명, 15.9%), 현장체험 활동을 통한 경험 확대(121명, 12.3%),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도전행동 지원(119명, 12.1%), 의사소통 및 발음지도(111명, 11.3%) 등을 강조하여 학급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특수교사들은 대면 수업 전환 후 교육활동을 실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행동 대응의 어려움(781명, 53.3%), 사회적 관계지도의 어려움(576명, 26%), 행정적 업무의 어려움(305명, 13.8%), 학습지도의 어려움(282명,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원인력 관리의 어려움(129명, 5.8%), 학부모 상담의 어려움(57명, 2.6%)

이 있었다.

표 4. 대면수업 전환 후 학급차원의 강조점과 어려움 (N=2,214)

Table 4. Emphasis and difficulties at the class level after switching to face-to-face classes

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백분율(%)
특수교사 학급차원의 강조점(n=984)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생활 습관 지도	246	25 %
	교우관계 지원을 통한 사회성 증진	162	16.5 %
	기초학업기술 지도	156	15.9 %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한 경험 확대	121	12.3 %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도전행동 지원	119	12.1 %
	의사소통 지도, 발음지도	111	11.3 %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36	3.7 %
	장애이해 교육	31	3.2 %
	기타	2	0.2 %
교육활동 실행 시 어려움(n=2,214)	정서행동 지원 및 위기행동 대응의 어려움	781	35.3 %
	사회적 관계 지도의 어려움	576	26 %
	행정적 업무(공문처리 등)의 어려움	305	13.8 %
	학습지도의 어려움	282	12.7 %
	지원인력 관리의 어려움	129	5.8 %
	학부모 상담의 어려움	57	2.6 %
	장애학생 상담의 어려움	15	0.7 %
기타	69	3.1 %	

4) 대면수업 전환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와 지원 요구

특수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학급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인원수 감축(1,276명, 57.6%)을 들었다. 이와 함께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299명, 13.5%), 다양한 디지털 수업자료 제공(246명, 11.1%), 지원인력 효율적 운영 및 확대(181명, 8.2%), 수업시수 감면(147명, 6.6%) 순으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되어 특수교사들은 학급에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영역에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수업지원(협력교사 팀티칭)(602명, 27.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학생 개인 신변처리 및 이동지원(561명, 25.3%),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참여지원(426명, 19.2%), 방과후 장애학생 돌봄지원(132명, 6%) 등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추가 인력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276명으로 12.5%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특수교사의 교권향상과 심리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통한 교원 권한 강화 요청(1,022명, 46.2%)이 가장 많은 응답 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개별 전문상담 프로그램(463명, 20.9%), 심리지원 프로그램 확대(400명, 18.1%), 전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 상담지원(271명, 12.2%) 순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다.

표 5. 코로나19이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지원요구 (N=2,214)

Table 5. Issues and support needs that need to be urgently resolved after COVID-19

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백분율(%)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인원수 감축	1,276	57.6 %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299	13.5 %
	다양한 디지털 수업자료 제공	246	11.1 %
	지원인력 효율적 운영 및 확대	181	8.2 %
	수업시수감면	147	6.6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활성화	49	2.2 %
	교사 연수 활성화	16	0.7 %
기타	69	3.1 %	
인력 지원 요구	수업지원(협력교사 팀티칭)	602	27.2 %
	학생 개인 신변처리 및 이동지원	561	25.3 %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참여 지원	426	19.2 %
	추가 인력지원 필요하지 않음	276	12.5 %
	방과후장애 학생 돌봄지원	132	6 %
	방과후교육 활동 지원	95	4.3 %
	방역인력	15	0.7 %
기타	107	4.8 %	
특수교사 교권향상을 위한 지원	교육청, 교원 단체 등을 통한 교원 권한 강화 요청	1,022	46.2 %
	개별 전문 상담 프로그램	463	20.9 %
	심리지원 프로그램 확대(숲 체험 등)	400	18.1 %
	전문 변호사 위촉 및 법률 상담 지원	271	12.2 %
	기타	58	2.6 %

5) 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요구  
 특수교사들은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학급 증설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1,269명, 24.6%)과 교과수업 지원을 위한 교재 교구 지원(855명, 16.6%), 교사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660명, 12.8%), 코로나19 이후 수업 운영 매뉴얼(602명, 11.7%), 코로나19 정책이나 자료 등 관련 정보 탑재 홈페이지 구축(260명, 5%) 등

에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학급 운영과 수업 지원에 교육지원청 단위의 우선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예산 편성 운영의 융통성 부여(391명, 7.6%), 학교와 학급의 시설 지원(316명, 6.1%), 수요 조사를 통한 예산 투입(191명, 3.7%) 순으로 많은 응답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학급운영과 수업지원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함께 선별적이고 융통성 있는 예산 및 시설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선 요구에 대해서 특수교사들은 장애 영역별 거점센터 설립 및 지원(782명, 35.3%), 교사연수 활성화를 통해 학습지도 및 상담역량 강화(605명, 27.3%)를 꼽았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강화(391명, 17.7%), 순회교육 강화(354명, 16%), 보조공학센터 활성화(82명, 3.7%) 순으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표 6. 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요구 (N=2,214)  
 Table 6. Request for support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구분	내용	응답자수(명)	백분율(%)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 요구	학급 증설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1,269	24.6 %
	교과수업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 지원	855	16.6 %
	교사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660	12.8 %
	코로나19 이후 수업운영 매뉴얼	602	11.7 %
	코로나19 이후 수업운영과 평가 관련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 안내	575	11.2 %
	예산 편성 운영의 융통성 부여	391	7.6 %
	학교, 학급의 시설 지원	316	6.1 %
	코로나19 정책이나 자료 등 관련 정보 탑재 홈페이지 구축	260	5 %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 투입	191	3.7 %
	기타	32	0.6 %
특수교육지원센터 개선 요구	장애 영역별 거점센터 설립 및 지원	782	35.3 %
	교사연수 활성화를 통해 학습지도 및 상담역량 강화	605	27.3 %
	순회교육 강화	354	16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강화	391	17.7 %

보조공학 센터 활성화	82	3.7 %
-------------	----	-------

6) 장애학생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중요도 및 실행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에서 자녀의 학습 지원 관련 부모 역량 강화(4.4)와 학습지 및 수업자료 제공(4.2), 온라인 콘텐츠 및 기기 제공(4.2)에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학교 내 대면 보충지도 및 협력 강사 배치를 통한 학습 보충지도(3.9)와 방과후학교나 사제멘토링 운영을 통한 학습 지원(3.6)에도 비교적 높은 중요도를 보여 평균 4.1의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행도에서는 학습지 및 수업자료 제공(4.1)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항목은 평균 3.4 이하로 보통의 실행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사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학습지 및 수업자료 제공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자녀의 학습지원 관련 부모역량 강화나 온라인 콘텐츠 및 기기 제공, 협력강사 배치를 통한 학습 보충지도는 기관 협력과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장애학생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중요도와 실행도(N=2,214)

Table 7.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learning support to prevent educational gap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문항	중요도		실행도	
	m	sd	m	sd
학교 내 대면 보충지도(1:1 또는 1:2) 협력강사(기간제) 배치를 통한 학습 보충지도	3.9	1.14	3.1	1.38
자녀 학습지원 관련 부모역량 강화 교육	4.4	0.84	3.2	1.03
방과후학교나 사제 멘토링 운영을 통한 학습 지원	3.6	1.07	3.4	1.25
학습지 및 수업자료 제공	4.2	0.87	4.1	0.89
온라인 콘텐츠 및 기기 제공	4.2	0.90	3.3	1.09
합계	4.1		3.4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이후 특수교육 지원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17개 시도 2,214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특수교사들은 많은 장애학생에게 교육 격차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가족의 역량과 학생의 장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후속적인 교육격차 방지를 위해 장애학생 부모 역량 강화와 온라인 콘텐츠 및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조되었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비대면 시기를 겪으며 선행연구[6]와 같이 많은 장애학생들은 건강, 심리 및 행동의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해 심리상담, 정서행동에 대한 의료적 지원 등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상담 및 치료 확대, 지원인력 등 지원 체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7] 가족의 요구와 연계한 지원방안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8].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현황과 지원 방안을 토대로 현장 사례에 기반한 지원체계 구축 및 검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55&lev=0&statusYN=W&s=moe&m=031303&topType=N&boardSeq=88816>

[2] <https://ncov.kdca.go.kr/>

[3] S. M. Kang, K. W. Lim, S. G. Kang, I. S. Hwang, and J. H. Lim,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Online Class Experience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arge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Classes After Corona 19,"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4, pp. 675-704, Dec 2020.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4.675>

[4] S. M. Kim, "Research On Support Demand And The Difficulties Of E-Learning That Experienced By A Special Education Teacher During COVID-19 Pandemic", MA,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Gyeonggi, Feb 2020.

[5] Y. H. Kwon, S. Park, and H. D. Yi, "Issu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Gap After The COVID-19 Outbreak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6. pp. 625-644, June 2021. pp. 625-644.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625>
- [6] S. A. Cho, H. C. Chae, J. S. J. S. Min, and S. J. Lee, "A Study On The Health Changes Of Students In Long-Term Online Classes Due To COVID-19",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1, No. 3, pp. 18-25, June 2013.  
<https://doi.org/10.17703/IJACT.2023.11.3.18>
- [7]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9\\_00\\_02455379&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9_00_02455379&cID=10201&pID=10200)
- [8] Y. M. Jeong,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s' Happiness On Children's Autonom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1, pp. 95-100, January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95>